

# 대검 살상 부인 전두환 거짓말 또 '들통'

**전남대병원 5·18 증언집 '10일간의 야전병원' 보니**  
**오봉석 교수 "유방 찢린 여성 등 치료...신군부 주장 허위"**  
**당시 치료 223명 중 총상 41%...환자 69%가 10~20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대검은 날이 무디다"며 5·18 당시 계엄군의 대검을 통한 살상 행위를 적극 부인했으나 이를 뒤집는 증언이 1일 또 다시 나왔다.

오봉석 전남대병원 교수(흉부외과)는 전남대병원이 2일 발간한 220쪽 분량 증언집 '5·18, 10일간의 야전병원'을 통해 "80년 5월 유방을 (대검에) 찢린 여성을 치료했다. 신군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전남대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해냈다. 시민군을 숨겨줄 경우 병원을 폭파시키겠다"는 협박을 계엄군에게서 받았다는 의료진 증언도 제기했다.

◇의료진 "대검에 유방 찢린 20대 여성도 치료했다"=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대검은 날이 무디다. 국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것처럼 잔인무도한 살상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다"며 계엄군의 대검 살상에 대해 부인하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1980년 5월 전남대병원 흉부외과 레지던트로 근무했던 오 교수는 "20일 경 병원 앞 오거리에서 여자 환자가 실려왔다. 결론도 하지 않은 아가씨였는데, 최○○씨는 환자였다. 왼쪽 유방에서 폐까지 4~5cm 정도 깊숙이 찢린 자상이었다. 환자는 수술을 받고 3~4일 후에 퇴원했다"면서 "5·18 정문회에서 정부(군당국)는 대검에 의한 자상 환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었다"고 증언했다.

오 교수는 증언집에서 "흉부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최○○씨 외에도 대검에 허벅지 등을 찢린 환자들이 있었다"면서 "시간이 흐른 뒤 최○○씨가 다시 나타났다. 다친 부위가 가슴이어서 세간에 알려지게 꺼려졌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의 일이 계속 외전되고 정부(군당국)가 자상환자는 없었다며 거짓말하자 이를 바로잡으려고 나선 듯했다"고 기록했다.

이와 관련 정수만 전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검찰·병원 등 각종 기록을 보면 계엄군의 대검에 의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시민이 100명은 된다"면서 "국군의 대검 살상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는 전두환의 주장은 순바다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전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손민자 당시 전남대병원 간호감독은 "병원에 폭

## 부하직원 토끼·닭 사육에 공용차량으로 지인 관광 법원 "전 경찰서장 강등 처분 정당"

**"공정·청렴 의무 등 위반"**

부하직원에게 토끼·닭을 사육시키고,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을 하고, 공용차량·관사를 지인에게 빌려준 전 강원경찰청장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강원경찰청장으로 근무할 때에도 부하직원에게 자신이 구매한 토끼·닭 등을 사육하도록 지시하고 개인차량의 수리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한씨의 행위는 성실·직장 해 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한씨는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주해안경비단장으로 재직하며 조기 퇴근해 골프연습을 다니고 지인들이 제주도에서 놀러오면 관사에 머물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용차량을 이용해 지인들을 관광시켜주고, 의경에게 관사에 숙박 중인 지인들의 술과 식사를 준비시키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강원경찰청장으로 근무할 때에도 부하직원에게 자신이 구매한 토끼·닭 등을 사육하도록 지시하고 개인차량의 수리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한씨의 행위는 성실·직장 해 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한씨는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주해안경비단장으로 재직하며 조기 퇴근해 골프연습을 다니고 지인들이 제주도에서 놀러오면 관사에 머물게 한 것으로

## "전두환, 발표명령 부인은 어불성설"

**5·18수사본부장 지낸 최 환 변호사 광주시청 특강**  
**"회고록 통한 역사 왜곡·편향 더 큰 웃음거리 될 것"**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표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장은 말이 안 되며 통하지 않는 이야기"라

지난 1995년 5·18 특별수사본부장을 지낸 최환 변호사는 1일 "5·18민주화운동은 결코 뒤집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환 변호사는 이날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1시간 여 동안 진행된 초청 특강에서 "당시 70여 명의 수사팀이 작성한 수사기록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며 "5·18민주화운동이 왜곡되고 민주화운동 인사들이 폭도가 되는 등 진실이 뒤집히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환 변호사는 "최근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발포 명령은 내린 적 없다', 나도 억울하게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자신 뿐만 아니라 부인까지 나서고 있다"며 "회고록을 통해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고 5·18을 왜곡·편향해서 뒤집어놓으려는 행동 자체가 더 큰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뇌물을 받았고, 군사반란을 통해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며 "많은 희생자를 양산한 장본인들이다"고 규정했다.

최 환 변호사는 광주시 차원에서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환 변호사는 "건강이 좋지 않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왜곡하려는 소리가 들리면 직접 뛰어들어 가서 알리겠다"며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최 환 변호사



"최저임금 1만원 보장하리" 1일 광주시 서구 기아로에서 열린 '2017 세계노동절 대회'에서 5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1만 원 보장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 납시어선 조업중 잠수기어선 못보고 '깡'

**여수서 잠수사 1명 타박상**

1일 오전 7시44분께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송도 앞 해상에서 4.95t 잠수기어선 H호와 9.77t급 납시어선 B호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H호의 앞부분이 5m가량 부서지고 H호의 선상에 있던 잠수사 서모(50)씨가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다. 서씨는 민간자율구

조선을 통해 돌산 근해항에 입항해 대기 중인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납시어선에는 18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인명피해나 기름 유출 등 해양 오염은 없었다.

여수해경은 납시어선 선장인 박모(53)씨가 입항 중에 조업 중인 H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다는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여수 40대 병원 앞에서 분신 화상

**입원 치료...경찰 수사 나서**

여수의 한 병원 앞에서 40대 남성이 분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오후 3시13분께 여수시 화강동의 한 병원 앞 인도에서 장모(49)씨가 분신해 가슴과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장씨는 길을 걸으며 휘발성 물질인 연

료첨가제를 자신의 상체에 부은 뒤 스스로 불을 붙였다.

경찰은 장씨가 우울증으로 인해 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장씨는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상습절도 20대 출소 10일만에 초등학교 돌며 또 절도 행각

**성다발**

○상습절도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20대 남성이 4월 한 달 동안 광주의 초등학교 3곳을 5차례나 드나들며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초등학교생들이 범죄에 손쉽게 노출될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

○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 9일 출소한 오모(27)씨는 지난 달 19일 12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침입해 현금 18만원

을 훔치는 등 지난 달 24일까지 동구, 서구, 북구 소재 초등학교 3곳을 침입해 총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오씨가 자신을 붙잡은 경찰에 "오갈 곳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점심시간이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초등학교에 들어가 비어있는 교실에서 금품을 훔쳤다. 하지만, 학교 측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적은 한차례에 불과했다"고 진술.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나주의 중심상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임박!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1F 767㎡ | 약국입점확정, 커피전문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축산전문, 대형전시장  
 2~5F 794㎡ |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원원 환경  
 6F 743㎡ | 전문병의원 및 뷔페 레스토랑 등 대형연회장 환경

친철상당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

**나주혁신 빛가람 로데오 포장마차 사업주 모집 안내**

◆사 업 지 : 나주시 빛가람동 26번지 상업 6블럭 로데오 거리 일원  
 ◆지 격 : 소자본으로 요식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모집업종  
 - 육 류 :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관련 요식업종 (5개 업소)  
 - 가금류 : 닭고기/ 오리고기 관련 요식업종 (5개 업소)  
 - 해물류 : 회, 생선구이, 조개구이 등 관련 요식업종 (5개 업소)  
 - 주 류 : 수제맥주, 와인 등 관련 요식업종 (5개 업소)  
 - 분식류 : 제과,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관련 요식업종 (5개 업소)  
 - 동남아음식 : 베트남, 일본, 중국 등 관련 요식업종 (5개 업소)  
 \*유형 프랜차이즈 입점 불가  
 ◆점 포 수 : 29점포  
 ◆임대조건  
 - 보증금 : 1,000만원  
 - 월 세 : 매출에 따른 수수료 매장 or 월 고정 임대료 중 선택 가능  
 ◆입점혜택  
 - 인테리어 비용의 최소화  
 - 주 2회 거리공연 (기념일 대규모 행사)  
 - 이간 배달주문 콜센터 운영 (18:00~22:00)  
 - 지속적인 광고 홍보 / TV 및 라디오 광고 예정  
 - 사장님은 맛과 서비스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최상의 영업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나주혁신도시 유흥의 중심"  
 빛가람동 상업6블럭 로데오거리의  
 「빛가람 로데오 포차」와 함께 할 사업주를 모집합니다.

오픈 예정일 : **2017년 5월**  
 -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061)333-5001**  
 나주시 배벧1길 26-1 ING타워 101호